

한국의 건축가 13 - 홍순인(2)

Korean Architect, Hong Soon-In

사무소 개설과 건축 활동

최완호 / 건축사사무소 예소

by Choi Wan-Ho

1. 사무소 개설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3. 홍순인 (9807~9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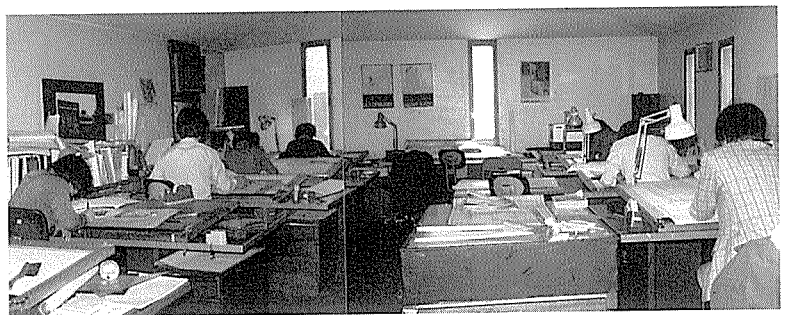
가. 제동사무소(1974년 - 1977년)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은 홍순인은 공간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예술관, 서울교육대학교 본관, 롯데호텔 등 큰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할 정도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한다. 이러한 대학교 일들은 후에 홍순인 건축의 후기를 아름답게 장식해 준 충북대학교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

1974년은 홍순인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한해였다. 독립해 보고 싶은 생각이 점점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으며 주위환경도 그런 방향으로 조성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간연구소의 표면적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홍순인에게는 사무소의 방대한 조직운영과 경영의 어려움이 큰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러 건축주들로부터 규모있는 프로젝트의 설계의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출판문화회관도 이 시기에 얘기가 있었는데 홍순인은 이러한 일을 하나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자신의 작품으로 진행하고 싶었다. 결국 홍순인은 1974년 10월 17일 김수근씨를 만나서 자신의 독립 의사를 밝히게 되며 김수근씨도 젊고 유능한 후배 건축가가 자신의 길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으나 아끼는 후배의 발전을 위해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홍순인은 공간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제동주유소 2층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제동사무소 4층에는 그의 대학과 공간연구소 선배였던 김원석(테크노 사장)이 이미 실내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늘 형처럼 홍순인을 이끌어

1. 탄생배경 및 성장과정과 건축수업
2. 사무소 개설과 건축 활동
3. 작품과 건축철학



대우건축연구소 내부 전경

주고 조언해 주었던 선배였기에 홍순인은 그와 가까이 있으면서 건축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홍순인은 사무소의 이름을 '대우건축연구소'라 하였는데 이 이름도 김원석의 장남 대원이와 홍순인의 장남 우식의 첫자를 따서 만들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막역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초창기에는 빈 사무실이 없어 4층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으나 얼마 안돼 아래층이 비게 되자 2층으로 내려와 독립적인 사무소 대우건축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홍순인은 그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출판문화회관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1972년 설계했던 연희동주택의 건축주인 한림출판사 임인수 사장의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출판문화회관은 공공건축의 성격을 가진 건물로 처음에는 공모하거나 유명한 건축가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출판문화회관 상무로 건축을 담당했던 임사장은 자신의 주택을 성실히 설계해 주었던 홍순인을 추천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 그래서 임사장은 제일 먼저 반대한 임원 한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홍순인을 만나게 해 주었고 이 자리에서 홍순인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도 홍순인을 적극 호응하게 되었고 끝내 그 일은 홍순인이 맡게 되었다.

출판문화회관은 적지 않은 규모로 대지와 주위환경, 그리고 건축주의 폭넓은 배려가 있었던 흔치않은 좋은 조건의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홍순인은 신명을 다해 그 일에 임하게 되었으며 스케치에서부터 건축 및 구조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면을 본인이 직접 그렸다. 많은 애착을 갖고 1974년 후반부터 1975년 회관이 준공되기까지 다른 일보다 이 일을 우선시하여 전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출판문화회관은 1975년 대한건축사협회를 수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판문화회관은 홍순인에게 있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다. 첫째는 그의 설계사무소 시작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이었고, 둘째는 출판문화회관을 계기로 그를 도와주는 많은 후원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로코아빌딩, 온양민속박물관계획, 관철동빌딩 등도 이러한 후원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일이었다. 출판문화회관의 성공후 홍순인은 계속하여 적지 않은 규모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 조달청 중앙보급소

(74년)와 조달청 부산사무소(75년)를 비롯하여 종로코아빌딩(75년)을 연이어 설계하였는데, 코아빌딩은 한림출판사의 임인수 사장이 계속하여 후원자가 되어 준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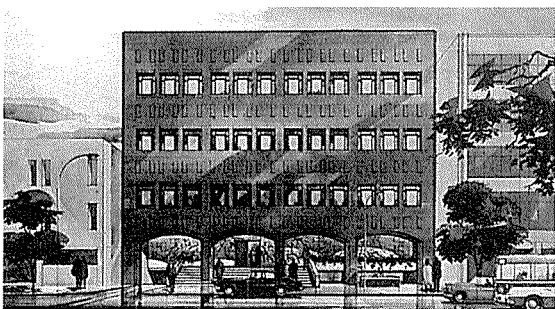
임사장은 건물을 짓기 전부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홍순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홍순인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켜 대지 주위를 오가는 인구동태와 직업, 연령별로 일주일을 조사한 끝에 전체를 오피스로 짓지 말고 3층까지를 학생들을 위한 백화점으로 하고 그 위를 오피스로 할 것을 제안하여 진행한 결과 예상대로 적중하여 많은 젊은이가 모이는 건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 일은 우리에게 건축주의 건축가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직원으로는 실장역할을 했던 성장평(내외종합건축 소장: 후에 홍순인의 손아래 동서가 됨)과 염태주, 윤덕찬(윤건축 소장), 오석창(당시 출판문화회관 감리) 등과 졸업반 학생이었던 안찬영(예반건축 소장), 방승대(간을건축 소장) 등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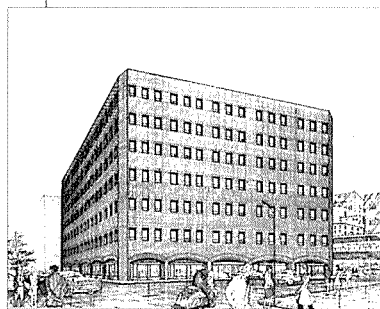
홍순인은 사무소 분위기를 처음부터 아뜨리에적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여건이 되는 한 중요한 현상공모에 참여하여 사무소의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 했고, 직원들에게도 건축교육을 하거나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출판문화회관과 다른 일들로 인해 분주했었고 사무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도 1975년 중순에는 '한국은행 본점 계획안' 현상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사무소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직원들에게는 건축자세를 일깨워 주었다. 필자가 1976년 초에 대우건축에 입사했을 때에는 온양민속박물관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는데, 큰 기대를 갖고 모형을 만들고 자료를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용도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홍순인은 직원들에게 박물관의 기능 및 동선과 수장계획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 인접한 경복궁내의 민속박물관을 관람시키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전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부여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을 관람했다. 그 일은 필자에게 아직도 즐거운 추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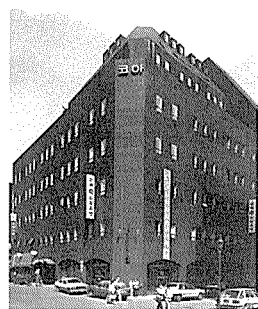
1976년은 대우건축의 직원교체가 많았던 한해



출판문화회관 투시도



종로코아빌딩 스케치



종로코아빌딩

였다. 기존의 직원들은 다른 사무소로 옮기거나 군복무로 휴직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권혁조, 홍영표, 홍봉식(예형건축 소장)이 들어오고 그해 11월에 송광섭(환건축 소장)이 입사했다. 홍순인은 설계경험이 많은 송광섭을 실장으로 임명하고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홍순인이 소장겸 실장으로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본다면 송광섭의 입사를 계기로 사무소 체제가 새로워졌다. 송광섭은 홍순인 소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련의 주택들과 다른 일들을 작품화하는데 많은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않았다. 사무소의 일들이 다양해지는 가운데서도 홍순인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는 건축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중반은 중동건설붐에 따라 국내건설회사가 중동에 많이 진출해 있었고 국내건축가들이 건설회사와 턴키베이스로 해외일을 간혹하고 있을 때였다. 홍순인도 K.O.C.C(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있었던 유종성씨의 협조속에 몇 개의 해외 작품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의 해외작품은 주메리아 비치모텔 및 레크레이션시설계획안(77년), 두바이 복합주거빌딩(77년), Public Housing(78년), Enany Commercial Building(79년)으로 큰 규모의 작품들이었다. 4개의 계획안 모두가 현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시설공사비가 엄청나다는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무소에 활기를 넣어주었고 직원들에게는 보람과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었다. 당시 이 일에 참여했던 윤병완(예일건축 소장)은 “두바이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하더라도 K.O.C.C 회의실에서 비닐을 깔고 한 달동안 살았습니다. 아마 해외작품이 처음이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라고 그때의 감회를 전하고 있다.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가 야근이나 철야근무를 불평하지 않고 일의 재미를 갖고 근무했다는 사실은 홍순인이 사무실의 분위기를 계속 아프리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장으로 일했던 송광섭도 “제동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는 아프리카적 분위기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섬세하고 온유한 분이셨지요. 남에게(특히 건축주에게) 싫은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 수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무실운영에 많은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설계비도 받아오고 건축주에게도 강하게 어필하는 등 홍선생님이 못하는 일을 대신 많이 했죠. 그 분의 일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무소가 해외작품일로 한창 분주하였을 때에 홍익대 건축과 동문인 문신규(토탈디자인 회장)씨는 시공중인 자신의 동승동사옥으로 이전해 올 것을 홍순인에게 제안하였다. 그 당시의 동승동은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어지고 김수근의 샵터사옥과 문예진흥원 전시관 및 공연장이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홍순인은 이러한 문화적 거리에 사무소가 있는 것이 괜찮았는지 1977년 6월에 제동사무소를 정리하고 사무소를 동승동 토탈사옥 2층으로 옮겼다.

나. 동승동사무소(1977년 - 1982년)

동승동은 문화의 거리로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는 아늑하고 분위기가 있어 설계사무소 위치로는 적당하였다. 또한 건물전체를 설계와 인테리어사무소 및 전시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무실로 이미지 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홍순인은 이곳에 와서도 주택과 해외작품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제동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주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새로운 주택 설계의뢰가 있었고 두바이 프로젝트도 계속하여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작품들은 사무소 규모에 비해 벅찬 일이었지만 직원들 모두가 홍순인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갖고 수많은 야근과 철야로 이루어냈던 일들이었다. 1978년 중반부터 1979년 초를 전후하여 사무소의 인원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 2년 가까이 작품만들기에 골몰했던 송광섭과 권혁조, 홍영표가 나가고 홍순인의 대학후배인 김영길과 서기(열린건축 소장)가 들어오고 중대에서 가르쳤던 김상범(해림개발 사장)과 김영철(자영업), 이자(전주소재 미건사건축 소장)를 비롯하여 한철화(원화건축 소장), 김기형(경성건축 소장), 이상용(예형건축 이사), 필자 등이 들어왔다.

1978년 후반부터는 대학의 프로젝트들이 들어



온양민속박물관 모형사진

오기 시작했다. 춘천교육대학교 본관 개축 및 도서관 신축설계와 홍순인 건축의 후기를 빛나게 해 준 충북대학교 마스터플랜의 일들이었다. 당시 이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었지만 정범모(전 충북대학교 총장)씨는 홍순인을 선택했다. 정범모씨는 “어떻게, 누구에게 소개받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학의 마스터플랜과 대학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나는 이 분에게 일을 맡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선 그 분의 성취정열에 반했다. 어떤 사업을 맡는다고보다는 걸작을 만드는 것, 만들어 내려는 정열,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의 상한을 테스트해 보려는 정열에 감탄했다. 어쩌면 걸작을 바라는 나의 마음과 그 분의 마음이 서로 이어졌는지도 모르지요.” 라고 그 때를 회상하였다.¹⁾

충북대학교 마스터플랜의 결정으로 홍순인은 1979년 초부터 1982년 9월 자신이 타계하기 전까지 충북대 프로젝트에 혼신을 다해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일은 건축가를 믿고 결정한 충북대학교 정총장을 비롯하여 관련 교수들과 건축관계자들에게도 큰 기쁨과 자긍심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홍순인은 일을 할 때마다 최선의 작품과 최고의 도면이 되기를 노력했다. 그는 많은 나날을 직원이 다 퇴근한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작품의 산고를 겪었으며 최종적인 납품도면을 위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몇 번이고 청사진을 빨간 플러스 펜으로 수정했다. 이것이 그의 건축에 대한 철저함이고, 정신이요, 자세였던 것이다. 홍순인은 충북대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5개의 주택과 2개의 오피스빌딩을 설계하였다. 주택의 설계는 이전에 설계했던 주택들의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 일들이었고, 오피스빌딩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축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일들이었다. 주택프로젝트는 홍순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화하려고 노력했던 일들이었다. 특히 주택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보내 일반적인 감리를 하게 했지만 본인도 별도로 현장을 자주 나가서 중요한 결정사항 등을 체크하여 주었다. 이시기의 홍순인 주택건축의 변화라면 80년 초까지의 주택은 거의 박스형 평면과 수평선을 강조한 평지붕처리로 일관되었지만, 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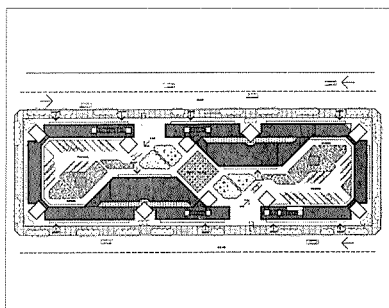
중반부터의 주택은 박스형 평면보다 정원을 감싼 ‘ㄱ’자형 평면형태가 나타나고 입면에서도 평지붕이 아닌 외벽보다 처마를 많이 내밀은 모임지붕으로 변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의 석사논문에서 밝히고자 했던 민가건축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계승적 요소의 하나를 지붕과 처마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1982년 초의 부산문화회관 현상공모 계획안에서도 그는 전통의 요소를 지붕과 처마로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오피스빌딩의 경우는 영동사거리에 세워진 논현빌딩(1979년)과 수송동에 세워진 이마빌딩(1981년)이 있다. 두 건물 모두 최고의 수익성을 목적하는 상업용 빌딩이지만, 일의 수행과정에서는 차이가 많았다. 논현빌딩의 경우는 건축주가 건축가를 적극적으로 신뢰해 준 경우라면 이마빌딩은 건축가에 대한 배려보다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와 인허가의 어려움이 많았던 일이었다.

홍순인은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직원에게 건축가의 정신과 자세를 가르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첫째는 일의 수행을 통한 능력개발과 책임감 부여다. 홍순인은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구조, 견적, 설비, 감리 등 건축가가 구비해야 할 여러가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 설계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달라지게 시공되었는가를 경험하기 위해 시공중이던 충북대의 초기 작품인 공학관, 교육관, 농학관을 방문한 것이나, 동송동 주택현장 등을 자주 나가서 도면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자긍심을 주거나 격려를 하기도 했다. 설계도면을 그리는데 직원 옆에 오거나 도면을 갖고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장소에서는 “본인이 그린 도면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도면을 그리도록 하자” 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둘째는 직원에 대한 건축교육이다. 홍순인은 직원들의 전체적인 실력향상을 위해 종종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하게 했다. 한 번은 정림건축의 최태용(이방건축 소장)씨를 초

1) 1998년 발간된 홍순인 작품집 pp11~12.



두바이 복합주거빌딩 계획안 배치도



주메리아비치 호텔 및 레크레이션시설 계획안 모형



동송동사무소앞에서 직원들이 함께
좌로부터 홍봉식, 김기형, 이상룡, 최완호, 서 기,
윤병완

청해 이대 도서관건축에 대해 듣게 했고, 삼신설비의 부소장도 설비에 관해 강의한 적이 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강사가 되어 건축설계의 방법론을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전술했듯이 현장확인을 통한 문제점 지적이나 도면을 그린 직원과 함께 하는 도면검토를 통해서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홍순인은 건축활동에 대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계속 했다. 그 결과 그는 1982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몸의 이상을 느낀 그는 1982년 3월에 A형 급성간염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일에 대한 고집과 철저함은 병원까지 이어졌으니 직원들을 병원으로 자주 불러 일의 진행을 협의하거나 작업지시를 할 때가 많았다. 한편 시공중인 이마빌딩의 어려움은 계속 홍순인을 힘들게 하였다. 병원에 있어서도 “내가 빨리 일어나 학교수업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학교강의를 걱정했던 홍순인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1982년 9월 8일 조용히 우리의 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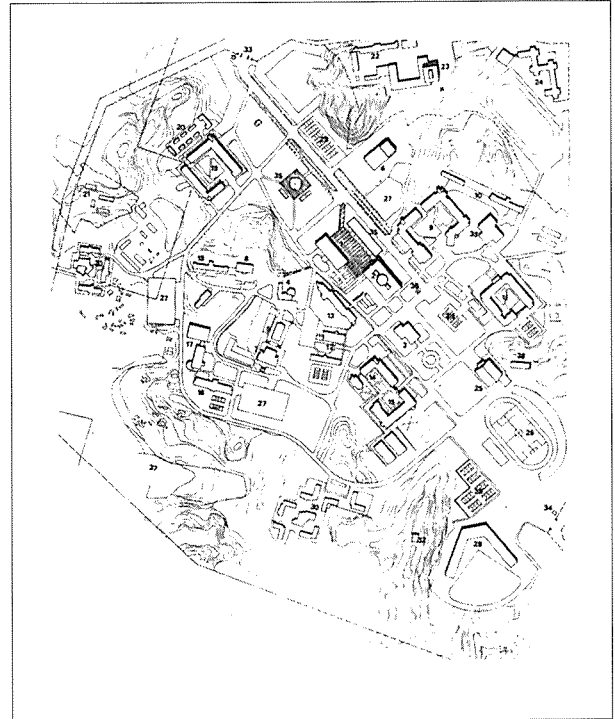
2. 건축활동

홍순인의 삶은 건축의 삶이었다. 남들과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 오직 건축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필자는 홍순인을 건축예찬론자라 부른다. 건축의 문외한도 그를 만나면 건축이 이해되어지고 그의 얘기를 듣고나면 건축이 좋아지게 된다. 그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랬고, 그를 후원하게 된 많은 건축주들도 그랬으며,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도 그랬다. 그에게 건축활동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이나 순수작품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활동을 든다면 크게 건축연구와 건축관련단체활동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가. 건축연구

1) 건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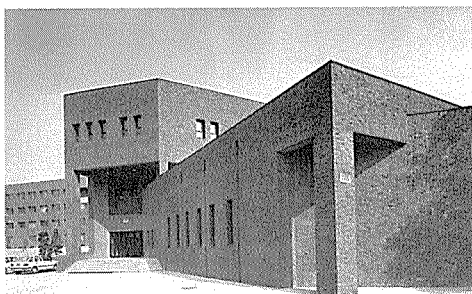
홍순인은 건축교육의 목표를 전체적 건축으로 종



충북대캠퍼스 마스터 플랜

합할 수 있는, 즉 어떤 의미로는 콘덕터 같은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그는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순인이 짧은 시간을 내서 학교에 나가는 것도 후배를 지도하며 보람을 얻는 것과 스스로의 교육연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즉 나태되기 쉬운 건축공토에서 자신을 경계하고 정도의 건축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일련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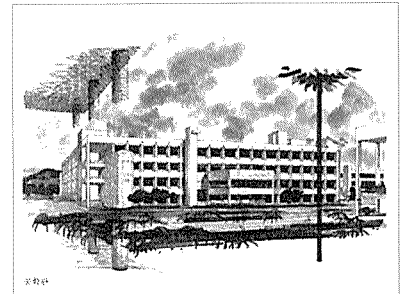
홍순인이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한 곳은 흥대 캠퍼스내에 있던 5년제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1973년 - 1975년)였다. 당시의 교수로는 이회욱(은퇴), 전명현(홍익대 교수), 서상우(국민대 교수), 김희구(홍익대 교수), 추영수(홍익대 교수) 등이 있었으며, 외부 강사로는 홍순인을 비롯하여 김남기, 오기수, 유승룡, 김기철, 이관영 등 많은 홍익대동문들이 출강하고 있었다. 건축설계 과목으로 시작한 그의 첫 강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충북대 인문관



충북대 사회과학관



충북대 인문관 스케치

그것은 이전까지의 많은 강의가 이론과 교재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홍순인의 강의는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그 때 강의를 받았던 김성호(자산건축 소장)는 “조용한 분이 설계강의를 하면서 왼손으로 칠판에 투시도를 그리는데 무척이나 잘 그렸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솔직히 기가 죽었습니다.” 라고 회상하고 있다. 당시의 국전(현재의 건축대전)에 학교 학생들 상당수가 입상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홍순인의 지도 및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바쁜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국전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내어 그들을 지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설계시간에도 홍순인은 과제를 해온 학생들을 일대일로 에스키스를 해 주었으며, 이런 기회를 통해 건축의 본질이나 설계의 합리적인 접근방법 등을 가르쳐 주곤 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부족한 면보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었으며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설계시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의 학생들은 홍순인을 자신들에게 건축의 혼을 심어주고 건축의 시야를 넓혀 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건축설계와 실내건축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은 홍순인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홍순인의 두번째의 건축교육은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1976년~1981년)에서 이루어졌다. 홍대의 은사였던 강명구 교수가 1973년부터 중앙대로 옮겨 가르치고 있었으며 강명구 교수는 홍순인에게 많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1976년부터 3~4학년을 가르쳤으며 교수과목은 설계뿐 아니라 현대건축론, 건축의장론, 공간론, 양식론, 계획각론 등으로 이전의 학교보다 과목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설계시간에는 건축의 철학적인 깊이보다 설계방법론을 많이 강의하였는데 주로 설계테마를 주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순인은 학생들에게 “설계라는 것이 스케치에 너무 치우치면 현실성이 없고 그림에 그치기 쉽다. 예를 들어 법규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의 설계가 옛날의 방법에 비해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므로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스케치에 의한 막연한 것보다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사무소직원들에게 교육한 건축설계과정의 방법론이란 녹음테이프의 내용과도 같은 것이다. 즉 그는 예비건축가들에게도 막연한 설계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설계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 강의를 받았던 오완근은 “저는 홍선생님에게서 건축의 철학적인 깊이 보다는 설계방법론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강의받기 전에 선배님들이 강의를 받으며 무릎을 친다” 라고 했는데 정말 열의있는 강의로 설계방법을 분명하게 풀어 주시더군요, 보통 설계강의는 과제를 내주고 소극적으로 수정, 발전시키기 마련인데 홍선생님께서서는 그것을 180°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어요, 생각 못했던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라고 말했다. 홍순인의 강의는 특색이 있다. 말이 빠르고 칠판에 써 내려가는 글씨의 속도도 빠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지식을 후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그의 강의는 힘이 있고 핵심이 있었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강의가 아니라 들으면 수긍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재미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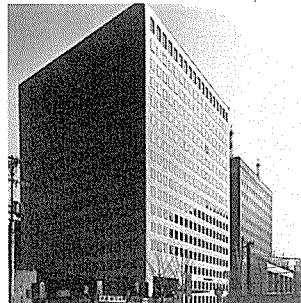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계나 양식론 및 현대건축론 등의 과목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과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두 학교의 학생들은 설계시간이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라 말했다. 홍순인은 즐겁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이 즐거움을 위해 성실히 강의준비를 하였다. 홍순인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내가 빨리 일어나서 학교수업을 계속해야 할텐데” 라고 말했다 정도로 건축교육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몸이 낯게 되면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학교에서 후진양성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나 아쉽게도 그의 이러한 소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2) 대학원진학과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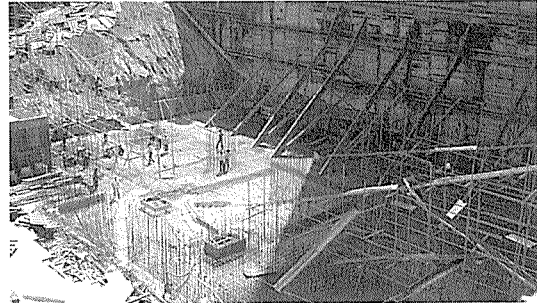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의 실무를 겪고나면 많은 사람은 정체되어지거나 매너리즘화되는 경우가 많다. 홍순인은 이러한 나태를 경계했고 늘 새로움속에서 정진하기를 소망했다. 그



역삼동 '임' 씨 주택



이마빌딩



이마빌딩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광경

래서 대학졸업한 지 10년만인 1975년에 홍익대학원 건축과에 입학하였다. 그의 석사논문의 제목은 『전통마을의 형성과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전통사상이 강한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평소에도 전통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며 그의 작품에도 간혹 전통적 건축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982년 초에 부산문화회관 현상공모에서 지붕의 처마처리와 완충공간의 적용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의 논문의 주요 목적은 첫째, 농촌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천해 가면서 민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계승되고, 어떤 부분이 소멸 또는 변화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양식주거형식이 아닌 우리의 의식구조에 밀착된 전통적인 주거형식의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결론으로 도시주변과 국도주변과 같이 주택건축 활동이 산업화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통민가마을에서 양식주거형식이 보편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 농촌지방이 건축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민가건축에는 전통적 건축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홍순인은 3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러한 여행은 다른 건축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에게도 건축의 산경험을 통해 감동을 받고 도전감을 느끼기 위함이었다. 그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늘 슬라이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보여 주고 하였다. 대우건축연구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결같이 사무소 근무를 보람있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홍순인의 재교육이 본인에게 끝나지 않고 사무소 직원들과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건축관련 단체활동

1) 대한건축사협회

홍순인은 그의 데뷔작인 출판문화회관으로 1975년에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한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건축사」지에 종종 발표하였으며, 1979년(동송동 박씨댁),

1981년(역삼동 임씨댁)에도 협회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1980년 1월부터 1981년까지 2년동안은 「건축사」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한국건축가협회

1974년에 가입한후 자신의 작품을 간혹 「건축가」지에 발표하였고, 1979년 12월에는 건축가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대담에서 “1970년의 건축사회”를 주제로 건축교육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1981년과 1982년에는 연이어 충북대학교 교육관, 사회관, 농학관으로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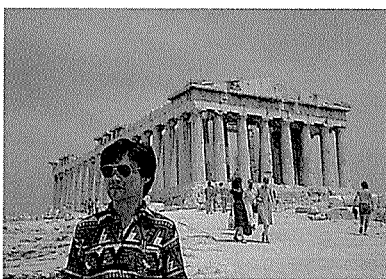
1981년부터 1982년 9월 홍순인이 타계하기 전까지 「공간」지를 빼면 당시로는 유일한 건축월간지인 「건축문화」의 상임편집자문역을 맡아 건축가들의 작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4) 금우회

매월 한번 금요일에 만나서 홍익대 건축과 동문들의 모임으로 홍순인의 생존당시에는 금우회가 특별한 활동없이 친목위주로만 모였으나 홍순인은 꾸밈지(1977년 11월~12월)와의 대담에서 금우회나 서울대의 목구회가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건축을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5) KOSID - 한국인테리어협회(현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던 KOSID 활동은 그가 생존시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큰 활동은 없었다. 그러나 실내건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건축가로 대성하라는 흥대동문들의 만류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럽여행중의 모습(파르테논 신전 앞)



시공중인 충북대 공학관, 교육관 현장 견학



중앙대 건축미술학과 졸업반 수학여행에서의 홍순인 선생의 모습(오른쪽 맨 앞 세번째)